AI 이노베이션 레포트

**□ 동영상 강의 요약**

AI 혁신을 선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고 방식을 깨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인데, 해당 사물이 갖는 목적에 대한 사고의 고착을 깨는 것이다. 상상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사물이 본래 갖는 목적 이외의 다른 기능들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적인 용도를 부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과 비슷한데 뒤샹의 ‘샘’같은 경우가 예로 들 수 있다. 하나의 물건을 전혀 다른 공간에 배치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변기가 예술 작품이 되는 기존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 대개 적용되는 범위를 한 곳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 간의 이질적인 결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시장성과 연결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맞게 AI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가령 생물학적 데이터를 주로 학습한 알고리즘이 심리 데이터를 다룰 수도 있는 경우가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모든 과정을 밟아 결국 사물과 기술 등 모든 용도에 맞게 개발됨을 넘어 포괄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서 AI를 통한 혁신에 조금은 더 발을 담글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물의 용도에 대한 사고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사람들이 갖는 문제 해결에 유용함이 없게 되면 이는 쓸모없는 혁신이 되고 만다. 결국 어떠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었다면 그 기술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 어떠한 사용자(우리가 기술을 통해 만든 무언가를 사용할 주체)가 무슨 문제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 사항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시각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에 부착하는 지, 의료 분야의 MRI분석에 사용되는 지에 따라 그 사용자가 누구이고, 그 사용 효과가 분명하고 무엇보다 해당 기술이 시장성을 갖는 지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TV, 노트북 등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었다. 누가 컴퓨터를 노트처럼 접고 다니고 지금은 아예 주머니에 넣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가 혁신을 이루고 상상을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불가능함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쩌면 혁신의 시작이고 why not change the world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